

본문 : 야고보서 2 장 14-17 절

제목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1.

부활절을 맞아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주 동안 해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동안 계속 해 오던 야고보서로 돌아옵니다. 야고보는 흠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게 될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부분에서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지 진단해 주고 답을 주는 형태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에게 내리는 처방전 같은 것이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병원에 가면, 내 병이나 몸 상태에 맞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오래 전부터 높았어요. 내분비내과 선생님을 만났더니 식단 관리하는 교육이 있으니 먼저 그 교육을 받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나서 피검사를 해 봐도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니 약을 먹자고 하시더라구요. 야고보도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지에 대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전함이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다 거쳐서 목적지까지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간 것이죠. 갖출 것을 다 갖춘 상태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12 개의 가르침이 2 장부터 5 장까지 이어집니다. 그중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2 장 전반부에 했었고 2 장 후반부의 이야기는 두 번째 가르침인 참된 믿음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반대를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빈 껍대기만 남은,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효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죽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큰 일인 겁니다. 죽은 믿음을 나무에 비하자면 이미 죽어서 이파리도 없고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저희 옆 집 나무가 꼭 그렇습니다. 나무 형태는 있는데 죽었기 때문에 꽃도 열매도 없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도 없고, 열매는 더더욱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믿음을 살아 있는 믿음이자 온전한 믿음이라 하는 건가요?

2.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믿음은 알기만 하는 믿음, 듣기만 하는 믿음과 구별되는 믿음이죠. 많이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응, 저 말씀 나 알아. 저 말씀 많이 들어 본 말씀이야.”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맞는 지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보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앞서 1장 22-25 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어 여기 뭐 묻었네.” 라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도 돌아서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짧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선포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 속에는 우리를 향한 도전과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가 죽으셨나 보네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잖아요.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죄도 아닌데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으로 삼아 온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물들이 나를 다스려 온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도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선포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안에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삶과 일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도전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임을 깨닫고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전과 명령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실천해 볼 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3.

야고보는 복음을 들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 구절 하나를 꼭 집어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관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총체적인(Wholistic)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 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담아낼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그릇은 공동체입니다. 머핀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머핀의 모양은 무엇이 결정하나요? 머핀 반죽이 담긴 틀이나 그릇이 결정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그릇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개인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전제 아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개인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데리고 쉽게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힘들더라도 이스라엘 12 지파를 통해 가나안 땅에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땅 정착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공동체라는 그릇을 통해 실천되고 행해져야 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굳이 교회가 필요한가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공동체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 표현되어 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깨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 온전해 질 수 있고, 공동체를 통해 실천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표현은 어떤 조직에서만 쓰는 호칭인가요? 가족이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 대신에 형제 자매라는 호칭으로 통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가족 공동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까지 박사님, 선생님, 이런 호칭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지극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호칭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해 주는 의미 있는 호칭이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나고 야고보는 묻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라면 서로가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헐벗고 배고픈 형제 자매를 보고도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아침 밥상을 준비해 주신 것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환대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요. 자기를 버리고 배신한 제자들에게 아침밥상을 준비해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가족이자 식구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했죠. 환대의 식탁은 가족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2 주 동안 저의 어머니와 누나 셋이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제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넷이나 모시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홉 명의 사람들을 위해 밥하고 설거지 하며 식탁을 차리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기쁘게 감당해준 아내에게 고마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라 여기니까 가능한 것이겠죠. 누나들도 저를 가족이라 여기니 김치도 담아 오시고 나물 좋아하는 저를 위해 말린 나물들도 가져 오시는 수고를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환대란 내 집을 오픈 하는 것이고, 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자세입니다. 환대야말로 책임있는 사랑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 자매로 부르신 가족 된 공동체 일원들에게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부탁드립니다.

5.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실천할 것을 부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선물로 주는 방식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는 증인 공동체를 만들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부터는 새로운 목장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목장이라는 가정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 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목장을 통해 구현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는 증인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함께 온전함에 이르길 바라시기 때문에 목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목장지기들인 목자들이 만나서 목장을 새롭게 구성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함께 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품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환대를 통해 우리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증인 공동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공동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의 서신인 요한 1서 3장 16-18 절에서 이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의 궁핍함과 어려움에 무한 책임지는 환대의 삶의 방식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메이요 병원에서 커리어를 쌓고 잠깐 있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뿌리내리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이곳에서 사랑받고 섬김받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믿음의 표현입니다. 서로 책임지는 환대의 삶의 방식을 공동체를 통해 실천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 질 수 있습니다.